

# 생산공정 자동화, 고품질 컬러박스 및 지기상자 생산

## 상품 경쟁력은 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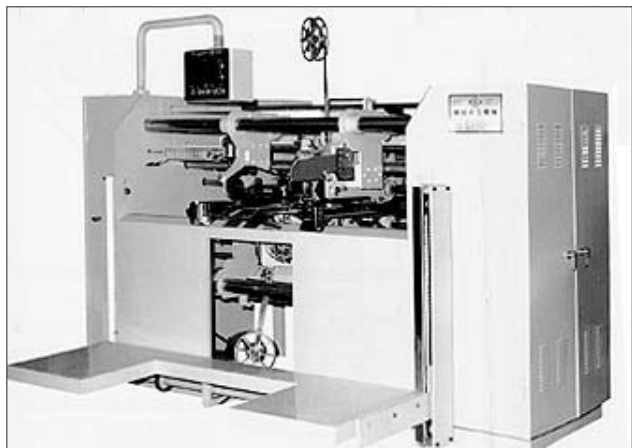
한 현 수

(주)대세물산 대표이사

전분야에 걸쳐 국내 산업 성장의 기틀에는 중소기업이 존재해 왔다.

중소기업의 경우 인적, 물적 자원 등 경영 자원이 대기업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목표시장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향후 정책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일이 중소기업의 과제이며 틈새시장을 확보해 이를 중심으로 기업의 역량을 집중시키는 일이 관건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경영 마인드를 갖추고 25여년간 외길을 걸어오며 발전한 (주)대세물산(대표이사 한현수)을 찾았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해 있는 (주)대세물산은 25년 동안 골판지 컬러박스 한 분야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발전해 온 중소기업이다.



▲ 투메치 스티처



◀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주)대세물산

1989년 대구 이현공단에 설립된 (주)대세물산은 1995년 현재의 구지고봉공단에 설비를 확장 이전했으며 옵셋인쇄기, 자동합지기, 반자동 톱슨기, 삼면자동 풀발이 등을 증설했다.

“고급포장을 생산하자”는 기치 아래 발전한 (주)대세물산은 노하우와 패기를 기반으로 컬러박스로는 최고의 기술을 보유함을 자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고품질 컬러박스 생산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설비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

하는 (주)대세물산은 투매치스티처에 서버모터를 적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설비를 증설해 왔다.

지난 2000년 4월에는 Q마크 품질 인증을 획득했으며 2005년에는 노동부에서 지정하는 크린 사업장으로 선정, 달성군으로부터 식품용기 포장류 제조업으로 허가받는 등 업계에서 그 위치를 대내외적으로 공고히 하고 있다.

(주)대세물산의 컬러박스는 기획 출력을 시작으로 제품이 공정된다.

이후 진행되는 옵셋인쇄는

박스의 형태 및 디자인에 따라 필름을 제작하여 인쇄하는 공정으로 디자인 표현에 제한이 없으며 실물과 같은 인쇄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코팅공정은 옵셋인쇄가 끝난 인쇄지 표면에 코팅액을 발라서 수분, 햇빛 등 주위환경에 의한 인쇄물 변질을 막아 주는 동시에 광택을 줌으로서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공정이다. 컬러박스의 옵셋인쇄 공정상 인쇄지를 따로 분류하여 작업하므로 인쇄물과 골판지를 접착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합지

**포장현장속으로**

탐방...

# DAESEI



▲ (주)대세물산이 생산하고 있는 고품질의 골판지 박스

공정이라고 한다.

대세물산의 경우 접착제로는 폴리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공정에서 박스의 내

충격성과 강도가 향상되게 된다.

합지가공이 끝나면 박스형태에 따라 목형을 제작하여

박스 본을 찍어내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

틈슨 과정은 플렉소와 달리 목형 제작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박스를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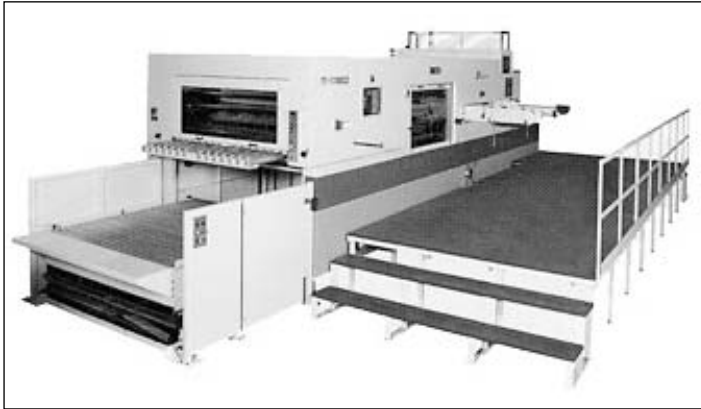
조립식 박스는 접합 공정이 불필요 하므로 틈슨 공정을 거치면 완제품이 된다.

이후 조립식 박스를 제외한 모든 박스는 접합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박스의 형태, 재질, 강도에 따라 투매치 스티처, 원매치 스티처, 3면 풀발이로 나누어 접합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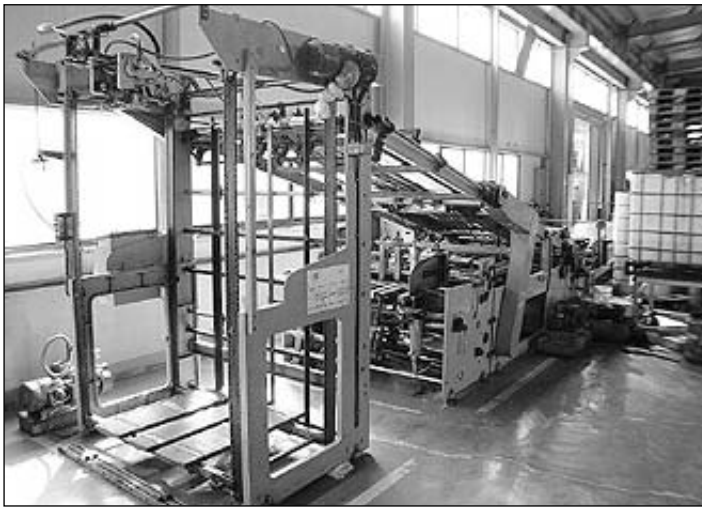
이러한 전 공정을 거쳐 현



▲ 출하되는 골판지 박스



▲ (주)대세의 반자동 톨슨기



▲ 합지과정

재 (주)대세물산은 과일 박스, 야채 박스, 제조용품 박스, 건강식품 박스 등 고품질의 골판지 박스를 생산, 공급하고 있다.

한현수 대표이사는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으로 고객 만족

도 1위를 지향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품질 향상과 원가 절감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대세물산은 상품의 경쟁력은 포장에서 비롯되며 물류산업의 경쟁 역시 한발 앞

선 포장에서 시작된다는 기본 마인드를 바탕으로 업계에서 위치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전 산업계가 마찬가지로 어렵지만, 지함업계 역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높은 부가 가치의 제품과 기술과 혁신적인 제품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일이 과제로 남겨져 있는 상황이다.

대세물산 관계자는 “21세기 물류산업의 발전과 함께 다국적 다량유통으로 유통체계가 복잡해 지면서 포장 또한 다양화 차별화 전략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최신기계 도입으로 생산 공정의 자동화를 추구해 온 대세물산은 소비자들이 100% 만족할 수 있는 제품 공급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와 다년간 경험, 최고품질을 바탕으로 우수한 기술 품질 골판지 컬러박스과 지기 상자 제조에 주력을 다할 계획인 대세물산, 국내 포장산업 선도 기업으로 우뚝 서길 기대해 본다. ☐

박초혜 기자